

# 호남석유화학 투자하면 “매력적”

한국투자증권, 2-5월 성수기 도래 ... S-Oil 목표주가 7만5000원

한국투자증권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부터 석유화학기업 주식의 투자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1월25일 전망했다.

황규원 연구원은 “2-5월 아시아지역 나프타 분해공장(NCC)의 대규모 정기보수로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도 상승하며, 농업용 필름과 건축자재 등 합성수지에 대한 계절적 수요도 증가할 것”으로 예측했다.

따라서 2월 중순까지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자세를 갖되 이후부터 5월까지는 적극적인 투자자세로 선회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
매수 종목으로는 S-Oil(목표주가 7만5000원)과 호남석유화학(목표주가 6만5000원)을 추천했다.

<화학저널 2005/01/26>